

단독으로 발생한 대퇴이두근 건의 파열 - 증례 보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상훈 · 성상철 · 남광우 · 이명철

대퇴이두근 건의 단독파열은 발생빈도가 매우 드물며 임상적 진단이 용의치 않고 아직 치료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수상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1례의 대퇴이두근 건의 단독파열을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40세 남자 환자가 내원 5일 전에 수상 스키를 타다가 좌측 슬관절에 손상을 받은 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후외방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상 당시 환자는 수상스키를 타던 중 수상스키가 벗겨져 과도에 동축 발이 빠지면서 슬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하퇴부가 외회전 되었다고 하였다(deceleration-external rotation injury). 환자는 수상 직후부터 보행이 곤란하였다고 하였으며, 특히 보행시 동 슬관절을 굴곡시키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동 슬관절 후외방에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동축 대퇴 원위 후외방부에 피하 출혈(ecchymosis)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슬관절 후외방부의 대퇴이두근 건의 응기(posterolateral ridge of biceps femoris muscle tendon)가 소실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소견은 슬관절을 약 90도 굴곡 시켰을 때 쉽게 관찰되었으며, 핵물된 부위에서 약 3~4cm 근위부에 연부조직의 뭉치(lump)가 촉지되었다. 환자는 기립위에서 동 슬관절을 능동적으로 80도 이상 굴곡시키지 못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동 슬관절에 부종 또는 불안정성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동 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MRI 검사상 대퇴이두근이 비골두 직 상부에서 완전 파열된 것이 관찰되었다. 수상 후 9일째 수술적 봉합을 시행하였다. 복와위(prone position)에서 지혈대 장착하에 동 슬관절 후외방부의 절개를 통하여 대퇴이두근 건이 비골부 부착 1cm 근위부에서 거의 모두 파열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비골신경, 외측축부인대 및 슬와근 건(popliteus tendon) 등 기타 슬관절 후외측 구조물들은 정상이었다. 제 2번 비흡수 봉합사를 사용하여 파열된 건을 봉합하였으며, 술후 약 50도 굴곡위에서 약 4주간 고정한 후, 보조기 착용한 상태에서 약 6주간에 걸쳐 서서히 신전-굴곡 운동범위를 증가시켰다. 술 후 3개월 추시상 능동적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슬관절 굴곡근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슬관절 굴곡시 봉합된 대퇴사두근건이 잘 촉지되었다.